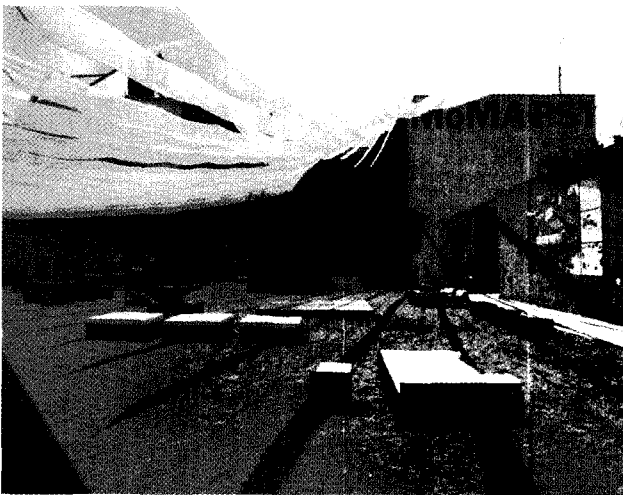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 Kim, Eunmee |

#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시도한 올해의 PS1의 건축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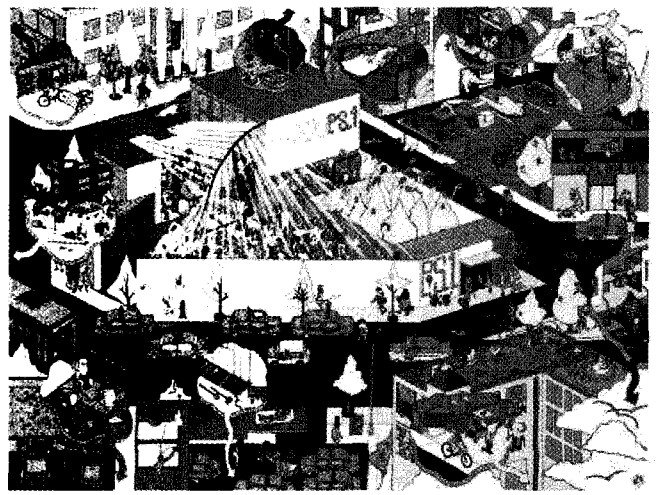


Courtesy Interboro Partners

지난 1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MoMA의 젊은 건축사를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PS1 설치예술'이 공모전은 젊은 건축사를 대상으로 MoMA의 주최 하에 매년 열린다. 이 공모전은 지금까지 작품 중 가장 통합적인 디자인 구현을 목표로 6월 16일에 설치되었다.

올해의 당선작으로 브루클린을 본거지로 하는 'Interboro Partners' 사무소의 'Holding Pattern'이 선정되었다. PS1 디자인 공모전의 기본요건인 그늘, 앉을 자리 그리고 16,000 스퀘어풋(square-foot) 크기 한도의 인공 연못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이번 당선작은 전작들과는 다르게 광범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어진 사이트와 주변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킨다. Georgeen Thodore, Tobias Armborst와 함께 Interboro 사무실을 공동 지휘하는 세명의 소장 중 하나인 Dan D'Oca는 "우리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MoMA 미술관을 연결시키길 원했다."고 말한다.

쉼터라는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Interboro는 저예산의 밧줄 캐노피를 디자인 하였다. 이상한 모양을 띤 다각형의 공간에 대응하기 위해, 그 캐노피는 중정의 벽들 사이에 쌍곡면의 형태로 묶여졌고, 그것들을 흰색의 네트로 덮었다.



Courtesy Interboro Partners

그리고 같은 PS1 사이트에서 열리는 자유분방한 여름 축제인 'Warm Up' 뮤직 페스티벌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Interboro는 캐노피 밧줄들을 잭슨 애비뉴 쪽 벽에 묶은 후, 반대편 난간 꼭대기에 붙여 있는 후크를 통해 이것들을 엮어 내었다.

이 기둥이 없는 지붕 시스템은 또한 중정 건물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CMU블럭으로 고정된 플랫폼의 무게를 난간의 눈 하중 수용 량에 따라 계산하여 디자인하였다.

다양하긴 하지만 가구들은 마그레이드 합판을 사용하여 패밀리 디자인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일시성(temporality)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구들은 고정된 것들과 움직이는 것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러한 구성들은 이용자들이 그 중정을 어떻게 보고 느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이번 Interboro의 디자인 프로세스의 가장 혁신적인 면은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공모전의 진행초기에, 디자이너들은 거리로 직접 나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디자인과 설치물이 필요한지 대화를 시도하였다.




Interboro의 D'oca는 "처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단지 주변 거주민 10명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까지 우리는 총 200여명의 거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한다. 거주자들의 요구사항들은 다양했으며, 그중에는 나무, 벤치, 그리고 라이프 가드 타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로 Interboro의 프로젝트에서 PSI은 가구와 식물들을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전시에 쓰인 가구들과 나무들은 전시가 끝나는 9월 26일에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질 것이다.

이웃 주민들의 가장 많은 요구 중에 하나는 주변에 더 많은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Interboro사는 전체 외부공간을 60그루의 오크 나무로 채우고, 전시가 끝나고 나면 그 나무들을 주변 지역에 심을 것이다.

요구사항에 의한 전용방법의 재설정이란 명제, 즉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개념의 해석으로, Interboro의 간단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의 접근은 다시 "지역사회"라는 가장 큰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 지역주민들은 PSI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이곳에 방문 한 적은 없다. 라고 한다. 이 미술관을 가장 근거리에도 가장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는 적어도 이곳이 지역주민들을 초청하고 있는 장소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곳을 방문할 것이며, 이 미술관이 가진 놀라운 작품들을 구경하게 될 것이다.

PSI 미술관은 브루클린에 위치한 노후한 학교 시설을 개보수 하여 미술관으로 사용하며, 신진 건축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공모를 하여 작품을 선정, 여름 동안 설치품을 전시한다. 필자도 미국에서 이 공모전에 초청된 팀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이 공모를 경험했는데, 그때 신진 디자이너들의 과감한 아이디어를 선정, 받아들이는 미술관의 성숙한 의식에 놀라움과 부러움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 전시에서 보여지는 인스톨레이션들은 기존 건축인의 시선으로 보면 상당히 전위적이며, 미술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공모를 거쳐 나간 젊은 건축사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이후 건축계에서 실제 훌륭한 건축물을 설계하며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많다.

이런 체계적인 신진 건축인을 발굴하는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훌륭한 건축인들을 뉴욕으로 모이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여 뉴욕이 설계와 디자인 수도와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되는데 일조를 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이벤트는 도시 전체의 건축 의식과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재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이란 물결이 건축설계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고 수준 높은 건축인 등용 시스템이야말로 말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장을 지켜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윗글의 일부는 <http://archpaper.com/news/> 의 기사 일부를 발췌, 인용 하였습니다.

